

[사회]

오늘 스승의 날…‘참 스승’ 있어 광주·전남 미래 밝다

5월 15일 제 28회 스승의 날을 맞아 교육발전에 공헌한 교원들이 정부포상과 시·도 교육감 표창을 받는다. 20년이 넘는 기간동안 능촌학교에서 가정 형편이 어려운 제자들의 미래를 밝히는 등 불이 되어주는가 하면, 학습 부진 학생의 공부를 돋기 위해 끊임없이 마다하고 매일 밤늦게까지 제자들과 수업에 열중하는 등 ‘제자사랑’에 묵묵히 헌신해온 참스승을 소개한다.

<포상자 명단 16면>



이혜순 교사, 이동진 교사, 윤정현 교사

자폐증 않는 제자 자식처럼 돌봐

▲백일초교 이혜순 교사=“제자를 자식처럼 여기는 게 참 교육의 시작입니다.”

광주 백일초교 이혜순(여·40)교사는 요즘 자폐증을 앓고 있는 수진(2학년)양을 딸처럼 돌본다. 수진이는 하루 종일 말 한마디 하지 않고 교실 학생에만 앉아 있을 정도로 자폐증이 심하다.

이 교사는 미술치료와 음악치료를 도입하고, 매일 수진양의 부모와 의견을 주고받는 것을 끝으로 하루 일과를 마감한다. 그녀는 올해 같은 학교에 다니는 자신의 딸을 수진양과 한 반에 배정 시켜 짹꿍을 뺏도록 했다. 이들 딸은 소문난 단짝 친구가 됐다.

이 교사의 이 같은 세심한 사랑에 힘입어 수진양의 증상도 친

구들을 장난을 할 정도로 많이 호전됐다고 한다.

이화여대 특수교육학과를 졸업한 뒤 지난 99년 교직에 뛰어든 이 교사의 손을 거쳐간 장애 아동만 50여명. 이들은 졸업 무렵이 되면 이 교사를 ‘엄마’라고 부른다.

학습부진 학생 위해 ‘공부방’ 운영

▲임자남초교 이동진 교사=임자남초교 이동진(31)교사는 학습 부진아의 실력을 높이는 데 탁월한 능력을 지닌 덕분에 ‘미다스의 손’이라 별명을 가지고 있다. 이 교사는 기초학습이 부족한 아이들을 발견하면 그대로 넘어가지 못할 정도로 교육에 대한 열정이 뛰어나다. 학기 중에는 밤 10시까지, 방학중에는 오전 내내

공부방을 열어놓고 제자들을 기다린다.

물론 공부방에 참여하는 것은 아이들의 자유지만, 동기들에 비해 성적이 떨어지는 아이들은 이 교사의 단골손님이다.

이 교사는 “초등학교의 경우 교사의 열정과 조그마한 희생만 있다면, 아이들의 실력을 얼마든지 높일 수 있다”면서 “제자들과 함께 공부하는 게 가장 큰 기쁨”이라며 활짝 웃었다.

사비 털어 학생 자격증 취득 도와

▲보성실고 윤정현 교사=보성실고 윤정현(49) 교사는 “자격증 제조기”로 통한다. 윤 교사의 밑에서 3년간 배운 뒤 올해 졸업한 자동차과 졸업생 40명은 총 460개의 자격증을 취득했다. 이는 전국 고교 중 학급별 최다 취득률이다.

불과 몇년 전만해도 보성실고는 한글도 제대로 읽지 못한 학생이 있을 정도로 부진했던 게 사실. 그런데 지난 2005년 윤 교사가 이 학교로 부임하면서 완전히 달라졌다.

윤 교사는 가정형편이 어려운 제자들을 설득해 1학년 때부터 자격증 시험에 도전하도록 설득하고, 지도했다. 또 자신의 사비를 털어가며, 단 한명의 나오자가 없도록 했다.

윤 교사는 “힘들었을 텐데도 잘 따라 준 제자들이 대견할 뿐”이라고 말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 제니스 린 마셜

“국제 위상 걸맞는 난민 지원 기대”

조선대 초청 강연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차지하고 있는 국가의 위상에 견주어 볼 때 아직은 난민에 대한 지원이 미흡하지만 앞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14일 조선대 법학연구원 초청으로 법대 모의법정에서 ‘난민과 무국적자의 인권보호’를 주제로 강연한 유엔난민기구(UNHCR)

한국대표부 제니스 린 마셜(55·Janice Lyn Marshall) 대표는 “보호를 필요로 하는 난민들이 갈수록 늘고 있어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한국의 관심이 절실히”하고 말했다.

제니스 린 마셜 한국대표는 “캐나다나 미국 등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모든 난민들이 공학·항만에서 난민 신청을 할 수 있지만 한국에서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만 가능하다”면서 “난민 신청 과정에서도 통역서비스가 제대로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신청 불허자에 대한 설명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개선해야 할 점이 상당수 있다”고 밝혔다.

마셜 대표는 “하지만 한국이 난민과 관련한 제도 및 행정절차



를 개선 중에 있어 조만간 좋은 결과가 나타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유엔난민기구 대표 자격으로 2006년 광주에서 열린 ‘노벨평화상수상자 광주정상회의’에 참석했던 마셜 대표는 “광주와 5·18민중항쟁은 한국 민주화를 정착시킨 원동력이다”고 평가했다.

한편 유엔난민기구(www.unher.or.kr)는 전 세계 3천200만명의 난민을 보호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유엔 산하기구다.

2차세계대전 종식 이후 발생한 100만 명 이상의 유럽 난민들을 돋기 위해 유엔총회 결정에 따라 1951년 1월 창설된 이래 전쟁과 폭력의 가장 큰 피해자인 난민들을 보호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돋고 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사진=최현기자 choi@kwangju.co.kr



박영렬 광주지검장(뒷줄 왼쪽에서 세번째)이 14일 광주시 남구 서동 광주직업소년원 ‘사랑의 식당’을 찾은 독거노인 등에게 식사와 음료수 등을 제공하고 있다. /위직령기자 jowi@kwangju.co.kr

광주지검 ‘서민들 속으로’

‘사랑의 식당’ 무료 배식…5·18 유족 등 위로

검찰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사랑의 식당’ 봉사활동을 벌이는 등 시민과 함께 하는 검찰상 구현을 위해 팔을 걷었다.

광주지검(검사장 박영렬)은 14일 광주시 남구 사동 광주직업소년원의 무료급식소인 ‘사랑의 식당’에서 관내 노인 등을 대상으로 ‘사랑의 끓’을 달아주고 무료 배식 활동을 벌였다.

이날 행사는 법무부가 추진 중인

‘사랑의 손잡기 운동’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박영렬 광주지검장 등 지검 관계자들과 범죄예방위원 광주지역 협의회 회원 등 50여명이 참여했다.

또 이날 행사에서는 ‘법질서로고송’을 부른 가수 윤형주씨가 참석해 주위의 소외된 이웃들과 함께 기초 법질서에 대한 소중함을 공유했다.

광주지검은 이날 ‘사랑의 식당’에

쌀 20kg들이 20포대와 음료수 600개

를 기증했다. ‘사랑의 식당’은 지난 1991년부터 자원봉사자를 중심으로 연중 무료로 무료급식을 하고 있다.

앞서 광주지검은 지난 12일 5·18 유공자 가정 3곳에 금일봉을 전달했다.

이날 행사는 5·18 민중항쟁 29주년을 앞두고 경제적으로 곤란을 겪고 있는 5·18 유족과 유공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 지검장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 위해 행사를 열었는데 의외로 큰 호응을 얻었다”며 “앞으로도 소외된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자주 마련해 서민과 함께 하는 검찰상 구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오늘 날씨

해물 05시 29분 해진 19시 29분

달밤 1시~1분 달점 10시 06분

흐리고 밤 늦게 비

대체로 흐리겠으며 밤 늦게 비가 내리겠다.

광주	흐리고 한때 비	16/25°C
목포	흐리고 한때 비	15/22°C
여수	흐리고 한때 비	17/21°C
완도	흐리고 한때 비	15/24°C
구례	흐리고 한때 비	13/26°C
해남	흐리고 한때 비	11/23°C
장흥	흐리고 한때 비	11/23°C
고흥	흐리고 한때 비	13/25°C
순천	흐리고 한때 비	15/24°C
영광	흐리고 한때 비	13/23°C
진도	흐리고 한때 비	14/24°C
전주	흐리고 한때 비	14/25°C
남원	흐리고 한때 비	11/26°C
화산도	흐리고 한때 비	15/18°C

비단	풍향	파고	밀물	썰물
서해 남부 일비단	남동~남	0.5~1.0m	목포 05:38 17:32	11:10 22:55
면비단	북동~남동	0.5~1.5m	여수 00:21 12:18	06:44 18:17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16(토)	17(일)	18(월)	19(화)	20(수)	21(목)
날씨						
최저/최고	15/19	14/26	13/28	13/29	14/29	14/27

광주 자율형 사립고·外高 공모

시교육청, 6월 2일까지

광주시교육청은 14일 “자율형 사립고 1~2곳과 특수목적고(외국어고) 1곳의 지원 신청을 내달 2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자사고의 신청요건은 국가 또는 자체로부터 교직원 인건비나 학교·교육과정 운영비를 받지 않고, 법인 전입금을 수업료 및 입학금 총액의 5% 이상 충족시켜야 한다.

자사고와 특목고 학생 선발은 일반 계고교의 정원 모집에 앞서 광역 시·

도법위에서 선발하고,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정원의 20% 이상 의무적으로 선발토록 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입학전형 방법은 교육과학기술부와의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자사고나 특목고로 지원을 원하는 학교 법인 등은 다음달 2일까지 신청서와 함께 건학이념 및 학교 운영에 관한 계획, 교육과정·입학전형·교원 배치 등에 관한 계획을 제출하면 된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승객 상습 성폭행 택시기사 징역 18년

광주지법, 공범은 20년

새벽 시간대 여성 승객들을 대상으로 상습적인 강도와 성폭행을 저지른 택시 기사와 공범에 대해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구길선)는 14일 성폭력 처벌법과 강도해 등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이모(34)씨와 공범인 또 다른 이모(33)씨에 대해 각각 징역 18년과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치밀한 준비를 통해 심야에 택시에 탄 여자 승객을 대상으로 무차별적 범죄를 저질렀으며, 흥기로 위협하고 폭행해 돈을 빼앗고 성폭행 피해자들에게 극도의 수치심과 정신적 상처를 입혀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들은 새벽 시간대 홀로 귀가하는 여성 승객을 택시에 태운 뒤 차 트렁크에 숨어 있던 이씨가 승객 옆자리에 타 흥기로 위협하는 수법으로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8차례에 걸쳐 강도와 성폭행을 저질러 구속 기소됐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